

자동차산업

자동차 업계의 트럼프 딜레마

● 자동차/부품/타이어
 Analyst 김준성
 02. 6098-6690
 joonsung.kim@meritz.co.kr

현대차, 미국시장 투자금액 상향전망 발표

정진행 현대차 사장,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향후 5년 31억달러 규모의 미국 시장 투자계획을 발표. 이는 지난 5년간의 투자규모인 21억달러에 비해 10억 달러 증가한 수준. 투자금액 상향 근거로 신규 공장 검토 (SUV 모델 또는 제네시스 라인업), 신규 모델 개발, 자율주행 및 친환경 R&D 확대 등을 언급. 다만, IR에 따르면 아직 구체적인 공장증설 및 투자내역이 확정된 바 없음.

현대차에게 있어 10억달러의 증액은 신규 공장을 설립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현지 R&D 확대에 보기에 다소 많은 애매한 규모. 당사는 이번 인터뷰가 아직은 정치적 제스처 정도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

트럼프 당선 이후, 많은 자동차 업체들이 예상을 상회하는 미국 내 투자계획을 발표하고 있음 (현재까지 발표된 6개업체의 투자규모 증액 수준은 150억달러로, 자동차 CAPA 관점에서 약 300만대 증가를 의미). 그러나 시장조사기관에 따르면 미국 자동차판매는 16년 판매 1,755만대를 정점으로 하향정체 국면이 시작될 전망이며, 수요둔화로 인해 이미 현지 재고와 인센티브는 상승 추세. 생산원가 부담이 높아 수출전진기지로 활용 여지가 낮은 미국에서의 공격적 증설은 공급과잉과 경쟁강화로 산업 전반의 수익성 하락요인이 될 수 있음.

정치적 측면에서의 신규 공장에 대한 가능성 점검

최근 완성차 업체들이 트럼프 당선 이후 연이어 미국 내 공격적 투자계획을 발표하고 있음. 현재까지 발표된 업체들의 투자금액은 CAPA 300만대에 상응하며, 이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연간 판매량의 약 20%에 달하는 수준.

- ▶Ford, 멕시코 공장 설립 계획 취소 및 미국 투자 (7억달러) 계획 발표
- ▶FCA, 2020년까지 공장 설비 현대화 (10억달러) 및 2,000명 추가고용 발표
- ▶GM, 공장 또는 라인 증설 (10억달러) 및 1,000명 신규채용 발표
- ▶Daimler, 미국 내 SUV 신규라인 투자 (13억달러) 발표
- ▶Toyota, 향후 5년간 미국 내 기존 설비 현대화 (100억달러) 계획 발표

수요 측면에서의 신규 공장에 대한 가능성 점검

수요성장 둔화로 인해 이미 현지시장 재고 및 인센티브 빠르게 늘어나고 있음.

- ▶ 17년 미국 전년동기대비 판매 성장률 전망 : IHS +1.7%, NADA -3.4%, Wards -3.9%.
- ▶ US Census 발표에 따르면 자동차 산업 지난 12월 Inventory-to-sales ratio 는 1.80으로 2009년 5월 이후 최고 수준.
- ▶ Autodata 발표 미국시장 인센티브는 전년동기대비 현대차 12월 +31%, 4Q16 +23%, 기아차 12월 +20%, 4Q16 +13%의 증가세 기록.

공급 측면에서의 신규 공장에 대한 가능성 점검

지난해 30만대 CAPA 규모로 가동을 시작한 기아차 멕시코공장 활용에 대한 고민 과 수출물량 축소에 따른 국내공장 가동률 하락 우려 존재.

- ▶ 현대차, 16년 기준 미국 리테일 판매 78만대 중 63%인 49만대 현지 생산 (39만대 앨라바마, 10만대 조지아)
- ▶ 기아차, 16년 기준 미국 리테일 판매 59만대 중 63%인 37만대 현지 생산으로 추정 (27만대 조지아, 10만대 K3 (K3는 17년부터 모두 멕시코 생산))
- ▶ 양 사 수출 물량 37% 중 생산라인 최소규모인 10만대 판매에 근접한 모델은 현대차 엑센트 (8만대), 투싼 (9만대), 기아차 쏘울 (14만대)

Compliance Notice

동 자료는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2017년 1월 18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유가증권(DR, CB, IPO, 시장조성 등) 발행 관련하여 지난 6개월 간 주간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2016년 1월 18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는 2016년 1월 18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김준성)

동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동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